광주 '3D 융합산업' 글로벌 메카 육성

지경부-광주시 비전 선포식

내년부터 5년간 1230억 투입

광주를 3D융합산업의 글로벌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3D융합산업육성 비전 선포식'이 24일 광주 테크노파크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시 제공〉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3D 융합산업'의 글로벌메카로 육성된다.

광주시와 지식경제부는 24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강운태 시장과 유수근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D 융합산업육성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은 광주, 대구, 경북을 연계한 '초광역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광주시와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에 12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D상용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3D강소기업(强小企業) 육성지원, 3D제품화 기술개발 등 3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사업이 광주 미래 핵심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3D디스플레이와 3D프린터, 3D계측기, 3D센서 등 관련분야의 전세계 시장규모인 100조원의 15%정도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광주를 3D융합산업의 글로벌메카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날 선포식에 이어 EBS와 ㈜디카이미디어, ㈜오피트 등 3D와 관련된 16개 업체와 지역 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 등 5개 기관 간 400억원 규모의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 광주가 3D융합산업의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강 시장은 선포식에서 "3D융합산업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개척하는 산업이며 2017년 시장규모가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황금산업"이라며 "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를 3D융합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광역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은 광주의 광산업과 대구, 경북의 IT산업의 역량을 결집해 고부가가치 3D융합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266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3D상용화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돼지 40% 구제역 항체 없다

겨울 앞두고 농가 비상…전남도 5개농가 과태료 부과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 항체 형성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올 겨울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남도와 지역 축산농가가 긴장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9월 전남지역 소·돼지 2763두 등 전국 1만700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는 98.7%, 돼지는 70.2%에서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소는 1156마리 중 1114마리(96%), 돼지는 1607마리의 61%(979마리)에서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을 1차 접종하면 소는 95~100%, 돼지는 60~80% 항체가 형성돼야 정상이다.

전남도의 경우 조사 이후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항체 형성률이 낮은 5개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1차 접종 뒤 출하하는 비육돈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항체 형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 같다"며 "구제역 발생지수와 항체형성률 사이의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전남도 등 전국 15개 시·도가 참여하는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가정해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방역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적조 소멸…전남 4년연속 피해 없었다

여수 등 전남해역에서 발생했던 적조가 소멸됐다. 지난 2008년 이후 4년 연속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여수 인근 해역에서 출현했던 적조 생물이 10월 '적조 광역조사'에서 소멸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실시해온 적조 광역조사에서 여수지역에서 한 때 적조 생물이 증가했지만 관계당국과 수산업계의 공조로 양식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2005년 9억67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 3700만원(2006년), 5억8000만원(2007년) 등 적조 피해가 잇따랐지만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추진協 본격 가동

오늘 광주시청서 첫 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본격 가동된다.

광주시는 25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기초과학연구단 조기 유치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협의회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남대를 비롯한 지역대학 총장들과 전국의 과학계 주요 인사 등 31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초과학연구단의 테마 등에 관한 의견 교환과 정보교류를 통해 연구단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서남권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연구시설인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유치전략도 논의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족하는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호남권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통일부 차관에 강진 출신 김천식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통일부 차관에 김천식(55·사진) 통일정책실장을 내정했다.

김형준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차관 내정자는 통일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업무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내정 배경을 밝혔다.

강진 출신인 김 내정자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시 28회로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남북교류협력국장, 남북경협본부장, 통일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9년 11월 개성에서 북한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측이 폭로한 지난 5월 베이징 비밀접촉 당사자로 이름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후임 인선을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대한민국 유치기원 행사 성황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의 대한민국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가 24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충석 여수시장, 김성곤·주승용 국회의원, 내외빈과 유치위원, 시민단체, 공무원, 어린이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UN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선 UN 가입국 국기를 그려 게양했다. 또 지역민들의 총회 유치염원을 담은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유영숙 환경부장관,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에게 보냈다.

서한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기후변화협약해법을 모색하고 녹색성장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 당사국 총회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남해안권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193개국 정부대표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2012년에는 대륙별 순환원칙에 따라 아시아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대한민국과 카타르가 유치경합을 벌이고 있다. 개최지는 오는 12월 제17차 총회가 열리는 남아공 더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뉴스 브리핑

쌀 고정직불금 조기 지급…전남 127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연말에 쌀 생산농가의 자금수요가 몰리는 점 등을 감안해 12월에 지급해오던 쌀 고정직불금을 10월과 11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이 지급받게 되는 고정직불금은 논 1ha당 평균 70만원 가량이며 전남은 총 1270억원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등 우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가가 보조금이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알 림

제61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8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김명규 교수의 '두통, 이럴 땐 위험신호!'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8일 제61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김명규 교수의 '두통, 이럴 땐 위험신호!'를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신경과 김명규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다양한 두통의 특징과 그 치료법, 반드시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원인질환을 규명해야 하는 위험한 두통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11월2일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주 제 : '두통, 이럴 땐 위험신호!'
■강 사 : 김명규 신경과 교수

-미국 Duke 대학병원 연수
-대한간질학회 학술위원회 위원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장
-임상의학연구소 뇌신경계연구실장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일 시 : 10월 28일(금) 오후 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訃 告

학교법인 동강·후성학원 이원묘 이사장께서
2011년 10월 24일 오전 10시 50분
노환으로 별세하시었기에 삼가 알립니다

분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장례식장 2층
발인일시 : 2011년 10월 26일 오전 11시
장지 :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산 41-1번지

孫婦 이홍승
孫女 이민희
嗣子 김형석
孫女婦 김숙도
孫壻 김주연
孫壻 권주현
孫女 송필희
孫女 김연식
孫女 김연철
孫女 김연희
孫女 범태인
孫女 진훈욱
孫女 창희

護喪 이상진

謹 弔

삼가 故 이원묘 이사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동신중·동신여중·동신고·동신여고 교직원 일동
동 강 대 학 교 직원 일동
동 신 대 학 교 직원 일동

(개별 부고는 생략하오며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연락처 동강·후성학원 사무실(062)520-2111
해인학원 사무실(061)330-3004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곗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득,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채준) 010-5311-0086

경매투자

• 공동 투자자 및 함께 공부 하실분
• 40% 미만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 주 1회 3개월 투자분석 및 개인지도
• 년 30% 수익률 법적보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 상 준

전 화 227~7575

이 이 齒 ~ 치 료 치 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5-중-9092호